

## 大協同機關組織의 必要와 可能 如何?

[彗星] 제1권1호 (1931년 3월호)

그러한 것은 나는 아무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全民族의 協同機關이라 하면 外面으로는 勿論 좋고 多數人의 結合이니까 힘이 強할 것 같지마는 실상은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또 시시부지하고 말기가 쉽습니다. 우리가 무슨 俱樂部모양으로 1년에 몇번씩 모여서 閑談이나 서로 하고 意思나 交換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已어니와 적어도 民族的으로 무슨 運動을 한다면 그 團體의 構成分子가 徹底한 意識과 主義가 서고 生命과 財産을 거기에 犧牲하겠다는 覺悟를 가진 人物들이 아니면 아니 되겠습니다. 過去에 우리 朝鮮 사람의 모든 團體와 事業은 그 趣旨나 綱領이 좋지 못하여 成功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奮鬪하는 勇氣와 誠力이 없는 까닭으로 失敗를 한 것입니다. 只今도 萬一 誠心誠意로 朝鮮을 爲하고 朝鮮民族을 爲하여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만 同志 몇 사람끼리라도 서로 힘을 合하여 旗幟를 鮮明하게 들고나서 實質있게 일을 한다면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은 嚮應하여 그 團體의 努力이 커지고 일도 힘있게 잘 할 수가 있지마는 다만 漠然하게 우리가 같이 團結하여야 되겠다고 하여 누가 發起하여 勸誘人會를 하게 한다면 그것은 個人本位의 結合이나 團體本位의 結合이나 結局은 아무 實力이 없이 第二 新幹會가 되고 말 것입니다. 대단히 未安한 말이지마는 어떤 會습이든지 우리 朝鮮사람은 적어도 權利主張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. 會를 할 때 보면 會長 또는 委員長같은 幹部 運動에는 누구나 激烈한 것 같고 또 무엇을 하느니 하고 案은 많이 내놓고 떠들기는 다 잘하지마는 實施에 金錢辨出할 方法이라든지 犧牲的으로 할 人物을 討議하는 마당에 가서는 그저 面面相顧하고 아무 소리가 없으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. 只今에 만일 무슨 運動을 한다면 社會主義者고 民族主義者고 먼저 義務履行 잘 할 사람으로만 그 團體를 組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人物에 있어서도 人格으로나 學識으로나 무엇으로나 한 地方하면 其 地方에서 信賴하는 人物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. 最初 일어날 때에도 決코 量을 取할 것이 아니요 質을 取할 것입니다. 中國의 國民黨이 只今은 저렇게 勢力이 크지마는 本來에야 孫文을 中心하여 몇 個人의 同志로 糾合된 것이 아닙니까. 其外 다른 民族들도 대개는 그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